

『宇治拾遺物語』의 敬語研究

- 中世語 「申す」의 待遇性を 中心으로 -

都基禎*

(e-mail : kjdo@nsu.ac.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中世的 用法 |
| 2. 從來의 用法 | 3.1. 對話文 |
| 2.1. 對話文 | 3.2. 地文 |
| 2.2. 地文 | 4. 맺음말 |

キーワード : 中世(The Middle Ages), 申す(Mosu), 謙讓語(Kenjogo), 丁重語(Teichogo), 丁寧語(Teineigo)

1. 머리말

학교문법에 있어서 경어의 분류는 「尊敬語」 「謙讓語」 「丁寧語」로 그 종류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일본어의 대우표현의 체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¹⁾.

上代, 中古期는 소위 「素材敬語」라고 하는 「尊敬語」와 「謙讓語」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中古期 이후가 되면 「謙讓語」용법으로 쓰였던 경어가 완전한 「丁寧語」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청자를 대우하는 「對者敬語」로 사용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²⁾.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본 논문에서는 경어의 종류를 宮地裕(1981)의 「尊敬語」 「謙讓語」 「丁寧語」 「美化語」 「丁寧語」로 분류한다. (宮地裕 1981 「敬語史論」 『講座 日本語學9 敬語史』, 明治書院, pp. 9-10)

2) 「かの白く咲けるをなむ夕顔と申し侍る。」(『源氏物語』 夕顔)

이러한 경어용법의 변화는 소위 「謙讓語」라 불리는 몇몇의 경어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申す」를 들 수 있다. 「申す」는 上代부터 「謙讓語」용법으로 사용된 경어였다. 그러나 「申す」는 中古期 이후가 되면 본래의 「謙讓語」용법을 유지하면서 대화문에서 청자에게 敬意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中世가 되면 「申す」는 종래의 용법과는 다른 중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법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단순히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謙讓語」「丁寧語」라는 분류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러한 「申す」를 어떤 종류의 경어로 판단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中世 「申す」의 다양한 待遇性에 관한 선행연구는 『宇治拾遺物語』보다 약 100년 후에 집필된 여류일기인 『とはずがたり』와 불교설화집인 『沙石集』에 사용된 「申す」에 관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³⁾. 그러나 同時代의 몇몇 작품의 분석으로 중세어 「申す」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申す」의 구체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中世 이후 용법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申す」의 待遇性에 그 초점을 맞추어 그 예가 빈출하는 『宇治拾遺物語』를 자료로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된 용례는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27 『宇治拾遺物語』(渡邊綱也、西尾光一 校註)에서 인용했다.

2. 從來의 用法

2.1. 對話文

(1) 今は昔、小野篁といふ人おはしけり。嵯峨の帝の御時に、内裏にふだをたて
[た]りけるに、無惡善と書きたりけり。帝、篁に、「よめ」とおほせられ
たりければ、「よみはよみ候ひなん。されど恐にて候へば、え申さぶらは

3) 都基禎(2002) 「とはずがたりの 敬語研究- 文體的 用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1, 韓國日語日文學會, pp.141-155.

都基禎(2009) 「『沙石集』의 「申す」-地文을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48, 韓國日本語教育學會, pp.105-113.

じ」と奏しければ、「ただ申せ」と、たびたび仰られければ、「さがなくて
よからんと申て候ぞ。されば、君をのろひ參らせて候なり」と申しければ、
「おのれはなちては、たれか書かん」と仰られければ、「さればこそ、申さ
ぶらはじと申て候つれ」と申に、…… (49 話)

예문 (1)은 궁궐에 사가(嵯峨) 천황을 비판하는 벽보를 보고 천황이 신하인 오노노 다카무라(小野篁)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다. 먼저 여기에 사용된 「申す」를 분석해 보면, 대화문에 사용된 「申す」(a)는 모두가 「申す」의 동작주체는 오노노 다카무라이며 동작객체는 사가 천황이다⁴⁾. 「申す」의 동작주체와 동작객체간의 관계는 당시의 신분상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동작주체<下位>, 동작객체<上位>라는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신분상에 있어서 下位者인 오노노 다카무라가 上位者인 사가 천황에게 敬意를 나타내기 위해 「云ふ」대신에 「申す」가 사용된 것이다. 대화문의 「候ふ」多用과 천황에 대한 절대경어인 「奏す」를 보더라도 사가 천황에 대해 최상급의 대우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謙讓語」용법의 본질을 素材間에 있어서 동작객체를 대우하는 「대상존경성」과 동작주체와 동작객체간의 객관적 신분의 상하관계에 근거한 「관계규정성」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 「申す」(a)는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上代부터 사용된 전형적인 「謙讓語」용법의 「申す」로 볼 수 있다.

「申す」(b)의 「ただ申せ」는 「謙讓語」용법의 「申す」는 아니지만, 최상급 신분의 천황 등이 자신의 동작행위에 존경어를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자신에 대한 동작에 「謙讓語」를 사용하는 예로서, 소위 自敬表現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세 이전부터 사용된 종래의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다른 대화문의 사용된 「申す」를 보기로 한다.

(2) 僧申やう、(閑院大臣殿ニ)「風重く侍るに、醫者の申にしたがひて、蒜を食て
候なり。それに、かやうに御座候へば、いかでかはとて參て候也。……」とて
(141 話)

4) 동작주체란 어떤 동작행위를 행하는 사람(シテ)을 말하고, 동작객체는 그 동작행위를 받는 사람(ウケテ)을 뜻한다.

5)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20.

(3) 帝、聞かせ給て、「その四條の南をば何といふ」といませ給ければ、「綾の小路となん申」と申ければ、「さらば、これをば錦の小路といへかし。飾りきたなきなり」など仰られけるよりしてぞ、錦の小路とはいひける。

(19 話)

예문 (2)에서는 병을 고치려온 간인노 오이도노(閑院大臣殿)와 스님의 대화에서 「申す」가 사용되고 있다. 이 대화문에 나오는 「申す」의 동작주체는 「医者」이며 동작객체는 스님이다. 이 「申す」를 만일 (1) 「申す」(a)와 같이 동작주체<下位>, 동작객체<上位>라는 인식하에 동작객체에 대한 경어 표현으로 본다면 스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敬意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 自敬表現이 되고 만다⁶⁾.

화자인 스님은 自敬表現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청자인 간인노 오이도노에게 「侍り」나 「候ふ」를 사용하면서 매우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 즉, (2) 「申す」는 청자보다 下位者인 동작주체 「医者」를 자신 측 인물로 간주하고 청자인 간인노 오이도노에게 敬意的 配慮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작객체를 대우하는 「謙讓語」용법의 (1) 「申す」(a)와는 달리 敬意의 방향이 청자에 있다. (3)경우도 마찬가지로 「申す」의 동작객체⁷⁾인 「綾の小路」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敬意 대상은 청자인 「帝」에게 있다. 이와 같은 敬意의 방향이 청자에 있는 「申す」의 용법 발생은 中古期 이후로 보고 있으나, 중세에는 대화문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다⁸⁾.

2.2. 地文

(4) 是も昔、大膳の亮大夫橋以長と云藏人の五位有りけり。宇治左大臣殿より召ありけるに、(橋以長ニ)「今日は、かたき物忌を仕ること候」と申たりけ

- 6) 中世에 있어서 自敬表現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는 화자가 천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西田直敏 1972 「宸記に見える所謂『自敬表現』について」 『国語国文研究』 50)
- 7) 이 경우 동작주체는 인명이나 장소 등을 ○○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이 된다.
- 8) 대화문에서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화제(「申す」의 동작주체/동작객체)를 낮추어서 정중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申す」를 「謙讓語」와 구분하여 「丁寧語」로 분류한다. 또한 이 용법이 성립하기 위해서 화제는 화자 자신의 것이나 화자 측에 관한 것에만 국한한다. (都基禎 2008 『とはずがたりの敬語研究』, 재이앤씨, pp.106-110.)

れば、「こはいかに、世にある者の物忌と云事やはある。たしかに參られよ」
と召きびしかりければ、恐れながら参りにけり。(72 話)

예문 (4)에서는 5 품 관직인 다치마나노 모치나가(橘以長)와 從一品인 우지노 사다이진(宇治左大臣)과의 서술부분에 「申す」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申す」의 동작주체는 다치마나노 모치나가이고, 동작객체는 우지노 사다이진이다. 즉, (4)의 「申す」는 地文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주체인 작자가 다치마나노 모치나가를 下位者로, 그리고 우지노 사다이진을 上位者로 인식하고 이를 대우하기 위해서 下位者인 다치마나노 모치나가의 「言ふ」행위를 「申す」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화문에서 우지노 사다이진이 모치나가에게 당시 최상급의 신분에게만 허용된 「參られよ」라는 自敬表現을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표현주체인 작자가 동작객체인 우지노 사다이진을 上位者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예문 (1)의 「申す」와 同質의 待遇性を 가지는 上代부터 사용된 전형적인 「謙讓語」용법의 「申す」로 볼 수 있다. 『宇治拾遺物語』의 地文에서는 이와 같이 천황을 비롯한 최상급 신분이나 절대자인 神佛을 동작객체로 한 용례가 많다. 이것은 객관적인 신분의 상하관계에 따른 「申す」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地文에 사용된 「申す」의 다른 용례를 보기로 한다.

(5) かくて、生贄を御社にもて参り、神主祝詞いみじく申て、神のおまへの戸をあけて、この長櫃をさし入て、戸をもとのやうにさして、それより外のかたに、宮司をはじめ、かく次第次第の司ども、次第にみな並び居たり。

(119 話)

(6) この成村、かたのすけに、「しかじかの事なん候つる。かの大學の衆は、いみじき相撲にさぶらふめり。成村と申とも、あふべき心ち仕らず」とかたりければ、かたのすけは、宣旨申く다して、「式部の丞なりとも、そのみちにたへたらんはといふことあれば、まして大學の衆は、何條ことかあらん」とて、……

(31 話)

(5)(6)에서는 「申す」가 「念仏を申す」와 같은 형식으로 「申す」의 동작객체인 「祝詞」나 「宣旨」의 배후에는 神佛이나 天皇 등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그 장소나 대상을 대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4)의 「申す」와는 달리, 동작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 동작객체와의 상하 신분관계에 따른 「관계규정성」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申す」의 동작객체인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에 중점을 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존경성」에 중점을 둔 표현은 동작객체에게 敬意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謙讓語」용법의 「申す」로 인정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법으로 「～と申す」형식의 표현이 있다. 이것은 주로 官位나 호칭, 또는 인명이나 지명 등에 붙이는 것으로 「～と」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인물이나 장소가 동작객체가 되고 동작주체는 그렇게 부르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다.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 수 있다.

(7) 四條の大納言のことと申は、まことやらん。 (157 話)

(8) 今は昔、山陽道美作國に、中山、高野と申神おはします。高野はくちなは、中山は猿丸にてなんおはする。その神、年ごとの祭に、かならず生贄を奉る。 (119 話)

3. 中世的 용법

3.1. 對話文

(9) 女の父のいふやう、「(前略)かの女子も『心にもあらず、あさましき死をし侍りなんずるかな』と申す。いとあはれにかなしう侍る也。さるは、おのれが女とも申さじ、いみじううつくしげに侍なり」といへば、あづまの人、(中略)このあづま人、「ただこの度の事は、みづからの申さんままし給へ」とて、 (119 話)

예문 (9)는 원숭이에게 산 제물로 바쳐야 할 딸을 그 아버지가 사냥꾼에게 간곡하게 구해달라고 하는 장면이다. 우선 「申す」(a)를 살펴보면, 「申す」의 동작주체는 화자의 딸이며, 동작객체는 화자인 딸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이

「申す」는 화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우하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敬意의 방향은 청자에 있다. 즉, 딸의 하소연을 자신의 화제로 인식해 그 아버지가 사냥꾼에게 낮추어서 정중하게 표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申す」(b)는 화자인 딸의 아버지인 「里人」가 청자인 「東人」를 대우하기 위한 것으로 「申す」(a)(b)는 모두 앞 예문 (2)(3)과 매우 유사한 「丁重語」용법의 「申す」로 판단된다.

그러나 (2)(3)의 대화문에서는 화자<下位>, 청자<上位>라는 객관적 신분관계에서 사용된 「申す」이었으나, (9)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분의 상하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9) 「申す」(c)의 대화문에서 이번에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바뀌어 상호간에 「申す」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객관적 상하 신분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申す」를 사용한다는 것은 「申す」가 이전의 것과는 그 待遇性を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中古期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신분대상이나 神佛에 대해서 「申す」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중세가 되면서 「申す」의 대상폭이 확대되어 (9)의 「申す」와 같이 그 대상도 매우 다양해진다. 다음 용례를 보기로 한다.

(10) 横座の鬼(翁ニ) 「いみじく申たり、かならず參るべきなり」といふ。奥の座

の三番にゐたる鬼 「この翁はかくは申候へども、參らぬ事も候はんずらん

[と] おぼえ候 [に]、質をやとらるべく候らん」といふ。

(3 話)

(10) 「申す」(a)의 경우, 「申す」의 동작주체는 「翁」이고, 동작객체는 「横座の鬼」이다. 이 표현은 대화 속에 흑부리 영감의 동작행위에 「參る」라는 표현을 보아 이 「申す」를 화자인 우두머리 도깨비가 스스로에게 대우하는 自敬表現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申す」의 敬意의 방향이 흑부리 영감인가, 혹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도깨비들에게 있는지가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

「申す」(b)는 부하 도깨비가 우두머리 도깨비에게 「申す」의 동작주체<흑부리 영감>를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우두머리 도깨비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다음 다른 용례를 보기로 한다.

- (11) 是も今は昔、丹波國篠村と云所に、年比、平茸やるかたもなくおほかりけり。里村の者、是をとりて、人にも心ざし、又われも食ひなどして、年比過る程に、その里にとりてむねとあるものの夢に、かしらをつかみなる法師どもの、二三人ばかり出でて、「申べき事」といひければ、「いかなる人ぞ」と問ふに、「此法師ばらは、此年比も、宮任ひよくして候つるが、此里の縁盡きて、いまはよそへまかり候なんずる事の、かつはあはれにも候。又、事のよしを申さではと思ひて、このよしを申なり」といふと見て、うちおどろきて、「こは何事ぞ」と、妻や子やなどにかたる程に、又、その里の人の夢にも、此定に見えたりとて、あまた同様に語れば、心もえで年も暮ぬ。 (2 話)

(11)은 느타리버섯이 스님이 되어 마을 우두머리의 꿈에 나타나 그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연유를 털어놓는 부분이다. 여기에 쓰인 「申す」 3例 모두가 대화문에 사용된 것이며, 동작주체는 <스님>이며 동작객체는 <마을 우두머리>이다. 만일 이것을 겸양용법의 「申す」으로 본다면, 이 「申す」는 동작객체인 마을 우두머리를 대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11)에서는 표현주체인 작자가 마을 우두머리에 대해서 어떠한 존경표현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동작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云ふ」와 「問ふ」로 서술하고 있다. 敬意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대화문에서만 동작객체에 「申す」를 사용하고 있다.

「謙讓語」용법의 「申す」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작주체<下位>, 동작객체<上位>라는 객관적 상하 신분관계의 설정이었으나 (11)의 「申す」에서는 동작주체와 동작객체간의 상하 신분관계가 불분명하다. 다만 꿈속에서 스님으로 나타난 느타리버섯이 대화에서 마을 우두머리에게 「候ふ」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자는 청자에 대해 매우 공손한 말투로 대우하고 있다. 「謙讓語」용법인 「申す」의 待遇성이 「대상존경성」과 「관계규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11)의 「申す」는 소재간의 관계규정성이 약화되면서 敬意의 방향이 꿈속에서 대화하고 있는 청자에게로 이행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宇治拾遺物語』에서는 작품의 특성상, 용례 (10)(11)과 같은 도깨비나 비

인간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인간이나 또는 자신들과의 대화에 「申す」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 「申す」(a)와 같이, 최상급의 신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自敬表現과 같은 「申す」표현을 쓴다거나, (10)의 「申す」(b)와 같이 객관적 신분관계에 의한 관계규정은 아니더라도 힘의 세력에 있어 부하 도깨비 <下位>, 우두머리 도깨비<上位>라는 작자의 주관에 따른 上位者에 대한 대우로 「申す」가 사용되기도 했다. (11)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하 신분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청자를 대우할 경우에도 「申す」가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申す」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표현되고 있다.

- (1 2) いとうれしくて、(修行者が→人ニ) 「ここはいづととか申候」と問へば、「などかくは問給ぞ。肥前國ぞかし」といへば、 (17 話)
- (1 3) (國守ガ前司ニ) 「我は此丑寅のすみにあり。(申略) 今五日ありて、六日と申さん巳の時ばかりには、返し奉らん。いたくなもとめ給ひそ」とみて、さめにけり。 (11 話)

(12)는 수행 길에서 처음 만난 행인과의 대화에서 장소를 묻는 상황에 「申す」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종래의 용법인 (7)(8)과 같이, 어떤 장소에 천황이나 神佛 등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는 장소라고 인식하고 그 장소를 대우하기 위해 사용하는 「謙讓語」용법의 「申す」표현과는 다르다. (12)에서는敬意를 나타내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단순한 지명을 나타내는데 「申す」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申す」표현은 「申す」가 실질적인 동작개념이 없기 때문에 「申す」의 동작주체와 객체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화자<國守>와 청자<前司>의 객관적 상하 신분관계를 보면 평등하거나 친척관계에 있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에 대해서 반드시 존경을 나타내어야 할 신분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尊者가 아니면, 굳이 「申す」의 동작주체<세상 사람들>를 낮추어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세적 용법으로 대화문에 있어 「申す」의 待遇性을 살펴보았다. (9)~(11) 「申す」는 경어분류로는 「丁寧語」로 볼 수 있으나, (12)(13)의 「申す」는 「侍り」「候ふ」와 같은 「丁寧語」용법에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2. 地文

(14) こは、この經の、蛇に變じて、われを助けおはしましけりと思ふに、あはれに尊く、かなし、いみじと思ふことかぎりなし。そのあたりの人々、これを聞きて、見あさみけり。いまさら申べきことならねど、觀音をたのみ奉らん、そのしるしなしといふ事あるまじき事なり。(87 話)

(15) 猶のぼるとも、はかりもなくおぼえければ、おそろしくて、それより歸にけり。さていくばくもなくぞ、頼時は失にける。されば胡國と日本の東のおくの地とは、さしあひてぞあんなると申ける。(187 話)

(14)(15)는 설화의 전승유래를 서술하는 부분으로 地文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14)인 경우, 「申す」의 동작주체는 작자 자신이 되며 (15)의 「申す」는 그런 이야기를 전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申す」의 대상이 되는 동작객체가 매우 애매모호해 소재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면 地文이기 때문에 표현주체인 작자가 그 작품의 수용자인 불특정다수의 독자에 대한 敬意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宇治拾遺物語』에서는 127話중에서 123話を 제외하고는 일반 독자에 대한 敬語는 보이지 않는다⁹⁾. 따라서 화자<작자>는 어떤 청자<일반 독자>를 想定해서 서술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예문 (15)는 「申す」의 동작주체가 설화를 전승하는 그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다. 地文에 있어서 이와 같이 「申す」의 동작주체와 동작객체가 3인칭인 경우, 화자는 반드시 존경을 나타내어야 하는 대상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上位者が 아니면 3인칭 인물을 자신의 이야기(화제)로 인식하고 그 대상을 낮추어서 청자에게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申す」의 待遇性에 관해 穂田(1976)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¹⁰⁾.

(一) 「申す」には、いかなる種類の<低め>も退化してしまって、ただ、<申す表現>が常に随伴していた莊重感だけで用いられている。

(二) 「申す」には、もはや為手を低める機能が著しく微弱化している。だが、<低

9) 「今は攝津國にいみじく老たる人道の……かたり侍りけり。」(片岡了 1976 「中世語『申す』の表現内容の多様性」 『文芸論叢』6, 大谷大学, pp.41-47.

10) 앞의 책, 穂田定樹(1976) p.189.

め>の意識、情意だけはなお残って、聞き手(読者)に対して、多少とも身を低くする話し手の態度ないし、ポーズを表わす。

다음 地文에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기로 한다.

- (16) 横座の鬼のいほく、「おほくの年比、この遊をしつれども、いまだ、かかるものにこそあはざりつれ。いまより、此翁、かやうの御あそびに、かならず参れ」といふ。翁申やう、「沙汰に及び候はず、参り候べし。此たび、俄にて、納めの手も、わすれ候にたり。かやうに御らんにかなひ候はば、しづかにつかうまつり候はん」といふ。(中略)この翁、おそろしと思ひながら、ゆるぎ出たれば、鬼ども、「こゝに翁参りて候」と申せば、横座の鬼「こち参れ。とく舞へ」といへば、さきの翁よりは、天骨もなく、おろおろかなでたりければ、…… (3 話)

(16)의 「申す」(a)는 흑부리 영감이 우두머리 도깨비에게, 그리고 「申す」(b)는 도깨비들이 우두머리 도깨비에게 말하는 부분에 「申す」로 서술되어 있어 「申す」의 동작객체는 모두 우두머리 도깨비라 할 수 있다. 이들 「申す」는 모두 地文에 사용된 것이어서 표현주체인 작자가 동작객체에게 敬意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판단하기 쉽다, 만일 작자가 동작객체인 우두머리 도깨비를 대우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식으로도 도깨비에 대해 존경표현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우두머리 도깨비의 동작행위에는 모두 「云ふ」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申す」표현은 우선 동작객체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표현주체인 작자가 작품의 수용자인 독자를 위한 표현으로 본다면 앞의 (14)(15) 「申す」표현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9)~(11)의 「申す」와 같이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서 자신의 화제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丁寧語」용법의 「申す」로 인정한다. 그러나 (12)~(15)의 「申す」인 경우는 穂田(1976)의 지적대로 (二)단계인 동작주체를 낮추는 기능이 미약해진 「申す」로 보고, 이것을 「丁寧語」용법과 연속하면서도 「丁寧語」용법에 가까운 표현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16)의 「申す」(a)(b)는 (一)단계인 「申す」로 동작주체를 낮추는 기능이 이미 퇴화되어 「申す」語感이 가지는 「莊重感」만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

다. 즉, (16)의 경우 도깨비와 흑부리영감의 동작 행위에는 모두 「云ふ」로 작자가 서술하고 있으나, 유독 주위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듯한 결정적인 순간에 「申す」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현주체인 작자가 일반 독자에게 장중한 표현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申す」로 판단된다.¹¹⁾ 「申す」의 이러한 표현성은 이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가마쿠라 시대의 다른 자료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17) 下總國に、ある女人、繼女の十二、三許りなるを、大きなる沼の畔へ具して行きて、この沼の主に申す。「この女を參らせて、聳にし參らせん」と度々言ひけり。ある時、世間すさまじく風吹き、沼荒れたる時、また例の様に云ふに、この女、殊に恐ろしく、身の毛いよ立ち、沼に水浪立ち、風荒くして、世間も暗く覺えければ、急ぎ逃げて家へ歸るに、物が追ふ心地しければ、弥々恐ろしなむども云ふばかりなし。さて、父がありけるにとり付きて、「かかる事なんありつる」と云ふ。さるほどに、母も内へ逃げ入りぬ。その後、大きなる蛇來りて、首を上げ、舌を動かして、この女を見る。父、下郎なれども、賢々しき者にて、蛇に申しけるは、「この女は我が女なり。母は繼母なり。我が許しなくては争かとるべき。母が詞によるべからず。妻は夫に隨ふ習ひなれば、此が母をば、心に任せてとるべき」と云ふ時、蛇、女をば捨てて、母が方へ逼ひ行きぬ。その時、父、この女を具して逃げぬ。この蛇は母にまとひ付きぬ。母も物狂はしくなりて、既に蛇になりかかりたると聞こえき。

[『沙石集』 (米澤本) 9-3]

예문 (17)은 시모후사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계모가 의붓딸을 늪에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 사는 수호신에게 딸을 바쳐 당신을 사위로 삼겠다고 늘 빌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뱀이 나타나 딸을 데려가려 하자 딸의 生父가 침착하면서도 엄중하게 세상의 도리를 뱀에게 말하고 계모를 딸 대신 내주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설화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申す」와 「云ふ」가 같이

11) 이러한 「申す」는 「화제속 인물의 행위」에 관한 표현으로 등장인물이 「言う」라든지 「告げる」「述る」「語る」「話す」와는 다른 「申す」라는 표현을 통해 「つつしみ深くなされた」「丁寧な物こしでなされた」라는 동작주체의 전체적인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앞의 논문, 片岡了(1976) pp.41-47.)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모와 생부가 뱀에게 말하는 부분에만 「申す」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서로간의 동작행위에는 모두 객관적 서술인 「云ふ」를 사용 있다.

우선 (17)의 「申す」(a)는 「申す」의 동작주체가 계모이고 동작객체를 높을 지키는 대상을 神的 存在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敬意的 配慮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申す」(b)의 경우는 동작객체인 뱀에게 어떠한 경어표현도 되어 있지 않고 생부의 행위 동작에는 「云ふ」로 나타나 있지만, 자신의 딸을 잡아가려는 뱀에게 간청을 하는 부분에만 「申す」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예문 (16) 「申す」(a)(b)와 마찬가지로 「申す」자체의 語感이 주는 「엄중함」이나 「간절함」이라는 문장의 표현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 판단된다.¹²⁾ 이상, 『宇治拾遺物語』에 있어서 「申す」의 待遇性を 경어 종류로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표1> 『宇治拾遺物語』에 있어서 「申す」의 용법

文 種類	謙讓語	丁寧語	美化語	丁寧語
地文	○		○	
對話文	○	○		△

4. 맺음말

上代, 中古期에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대상에 한해서만 「申す」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中世에 와서도 「申す」는 이러한 용법이 계승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표현 양상이 매우 다양해져 많은 용법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宇治拾遺物語』에서 「申す」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고찰한 결과, 「申す」가 동작객체에게 敬意를 나타내는 종래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화문에서는 종래의 용법과는 달리 화자와 청자의 객관적 신분의 상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申す」로 상대를 대우하는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申す」의 동작주체와 객체가

12) 「표현주체인 화자 스스로의 언어표현에 대한 미적배려」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이러한 「申す」를 「丁寧語」「丁寧語」와 구분해서 「美化語」로 분류한다. (앞의 책, 都基禎(2008) p.131.)

불분명하거나 동작주체가 화자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나 3인칭인 경우에도 「申す」가 자유롭게 사용되어 中古期와는 그 待遇性を 달리하는 것이 散見된다.

또한 地文에 있어서는 중세경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申す」 표현의 다양성이 인정되어 표현주체인 작자가 작품의 수용자인 독자에게 문장에서 표현의 극대감을 주기 위해서 「申す」 자체의 語感이 가지는 「莊重感」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都基禎(2002) 「とはすがたりの 敬語研究- 文體的 用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41, 韓國日語日文學會, pp.141-155.
- (2008) 『とはすがたりの 敬語 研究』, 제이앤씨, pp.106-110.
- (2009) 「『沙石集』의 「申す」-地文을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48, 韓國日本語教育學會, pp.105-113.
-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p.155-205.
- 石井幸子(1985) 「「申す」の用法 -古今著聞集と沙石集より見た-」 『文学論藻』, pp.59-85.
- 片岡 了(1975) 「素材敬語から対話敬語へ」 『文芸論叢』 4, 大谷大学, pp.35-42.
- (1976) 「中世語 「申す」の表現内容の多様性」 『文芸論叢』 6, 大谷大学, pp.41-47.
- 小島孝之 校註(2001) 日本古典文学全集 52 『沙石集』, 小学館. pp.18-616.
- 桜井光昭(1965) 「今昔物語集の申す」 『国語学』 62.
- (196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 明治書院, pp.185-252.
- 西田直敏(1972) 「宸記に見える所謂『自敬表現』について」 『国語国文研究』 50.
- 政岡正繼(1964) 「申す、聞こえさす、聞ゆ-官位、身分、人名を承ける場合について-」 『文学・語学』 32.
- 宮地裕(1981) 「敬語史論」 『講座 日本語学9 敬語史』, 明治書院, pp. 9-10.
- 渡邊綱也、西尾光一 校註(1960) 日本古典文学大系27 『宇治拾遺物語』, 岩波書店, pp.53-435.

논문 투고 일자 : 2016.12.24. 논문 심사 일자 : 2017. 01. 21. 게재 확정 일자 : 2017. 01. 22.
--

<要旨>

『宇治拾遺物語』の敬語研究
-中世語「申す」の待遇性を中心に-

都基禎

本稿は、中世鎌倉期の代表的な説話集である『宇治拾遺物語』に用いられている「申す」の待遇性について考察した。「申す」は上代、中古期に高い身分の人や尊敬すべき対象に限って使われた敬語であった。中世に入っても「申す」はこのような用法が継承されながらもその一方においては表現の多様性が認められ、用法上の変化が生じた。

まず、会話文においては話し手と聞き手の客観的な身分の上下関係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お互いに「申す」で相手を待遇する例がかなりあった。また「申す」のシテとウケテが不明である場合やシテが話し手とは全く関係がない人物、または第三人称の場合にも「申す」が自由に用いられており、中古期とその異なる待遇性を有するものがある。

さらに、地文においては、中世敬語の特徴とも言える「申す」表現の多様性が認められ、表現主体である作者が作品の受容者である読み手に対し文章の表現効果（荘重感）を表すために、「申す」が使われている。

A study on 'Mosu' in *Ujishuimonogatari*
- focusing on 'Mosu' -

Do, Ki-Jeong

The central purpose of the current paper is to show the usage of 'Mosu' in the *Ujishuimonogatari* written in the Kamakura Period. 'Mosu' is a typical honorific usage of language used in the Heian Period to express politeness and respect to people with a higher status.

It had been inherited to the following Kamakura Period. However, the usage of 'Mosu' in this period changed in a couple of respects. First, it was found that 'Mosu' was used in dialogues, in contrast to the Heian Period, to refer to the third person. 'Mosu' was also used in texts with an aim at an effect of formality.